

이춘석 내부자로 처벌 못한다



이 정 희 역
西村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등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

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linh@metrosoul.co.kr

디지털 전환과 금융장벽



기 지 수 첩
안 승 진
(금융부)

‘디지털 전환’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의 주요 목표로 부상했다. 각종 규제가 해체되며 비대면 금융의 영역이 넓어졌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절감된 비용은 은행의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며, 고객에게도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다. 간단한 이체·대출 업무를 위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고, 계좌 개설과 대출조차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누구에게

나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발길이 줄어든 은행 점포는 문을 닫고 있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제공했던 전화 상담원은 챗봇과 AI상담원으로 대체됐다. 고통자를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한 변화다.

오늘날 휴대전화를 통해 은행권 고객센터에 통화를 연결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보이는 ARS’다. 모바일뱅킹과 유사하게 설계된 화면인 만큼, 고통자에게는 이용이 어렵다. “상담원에 연결하려면 0번을 눌러달라”라는 안내 문구를 듣기까지 1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0번을 누르더라도 ‘진짜 상담원’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 대신 AI(인공지능)상담사가 연결된다. 인공지능 상담사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오지만, 미완(未完)의 AI상담사는 반복해서 안내 문구만을 내놓기 일쑤다. 혹여 문제가 해결됐다

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연결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린다. ‘진짜 상담원’과 연결하려면 AI 상담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담사 연결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주요 은행에 고통자가 AI 상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더 말을 잘 알아듣는 AI상담원을 도입했다”라는 이야기만 매일같이 내놓고 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객센터 연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은행은 ‘신뢰’를 거래하는 곳이다.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해선 비용 절감을 고려하기에 앞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asj1231@

오늘의 운세9월 5일 (금 7월 14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아름다운 여인은 대개 명이 짧거나 불운하다는데, 48년생 멀리서 소식 온다. 60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72년생 사람의 부귀는 각자의 팔자에 달렸지만 운명론에 빠질 것까지는, 84년생 버드나무 잎이 하얗다 지듯 세월이 아삭.

 소

37년생 싱그러운 식물 향기는 마음에 진정과 안위를 선물한다. 49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진다. 6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3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이니 움직여보라. 85년생 세상에 비밀이 없다.

 토끼

38년생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하루. 50년생 아재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 62년생 밝은 전정어니 이직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74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 脣亡齒寒. 86년생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내 분수를 지키자.

 토끼

39년생 사람의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부유해진다 했는데. 51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노력. 63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75년생 기술로 자신의 자력을 보여준다. 87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

 양

40년생 일회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52년생 나의 사랑스런 동반자를 개새끼로 만들지 말도록. 64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76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여준다. 88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

 뱀

41년생 열을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53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65년생 직장에서 외국어로 흥일점紅一點이다. 77년생 산속에 살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89년생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려보라.

 말

42년생 태양은 항상 떠오른다. 54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66년생 글자는 누가보아도 알기 쉽게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말을 할 때는 실행할 것을 계획하고 해야지만. 90년생 저 하늘이 무너지겠는가.

 양

43년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5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67년생 선행을 행하니 열매로 돌아온다. 79년생 옷이 날개이니 의복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자. 91년생 인생의 의의는 노력하면서 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거 마련.

 원숭이

44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큰 행복. 56년생 열차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여 가정이 평온하기를. 80년생 덮어놓고 하다 보면 실패의 손잔을 마시게 되니. 92년생 비평을 즐기자.

 닭

45년생 부화와 귀환은 조상님의 은덕으로 내가 부여받는 것. 57년생 어지럽게 늘어놓은 옷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루가 즐겁다. 69년생 부부라도 일기장을 엮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81년생 질투도 습관. 93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돼지

46년생 영화를 본다. 58년생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제사 지남을 피하지 말 것. 70년생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82년생 친구에게 밥을 사면서 생색내는 마음을 접는 것이. 94년생 마음이 가는 대로 걷자.

 돼지

47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59년생 물론 시대는 달라졌지만. 71년생 삼강오륜에서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라 했다. 83년생 직장에서 걸음걸이에 신발 소리 주의. 95년생 일생을 사느라려면 윤이 좋을 때도 있고 윤이 몰라갈 때도 있으니 공부.

김상회의四季

악연

양末,酉=사람을 제외한 뱀의 대표적 천적은酉닭 매다. 뱀이 양末와酉를 함께 보면 대패大敗 巳申刑=巳뱀은 원숭이申에서 병들고 대개 원숭이가 뱀을 잡아먹으니 뱀巳가 불리하다. 그러나 刑은 刑이므로 현상에서는 둘 다 상처는 입는다. 巳申病은 뱀 지렁이가 병이 든다는 얘기는 로드킬의 희생자들 명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사형寅巳刑 사신행巳申刑 사술귀문巳戌鬼門의 몰상이다. 이런 운에는 가급적 비행기 자동차 선박등을 탈 때 주의를 요한다. 죽어도 고"다 해서 자동차경주를 하다가 옆에 탄 차가 잠바의 줄에 걸려 죽는 제임스딘이 나온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갑자기 죽는 데는 관상에도 적용된다.

존 F. 케네디 관상을 얘기했다. 관록궁이 잘 발달한 관상으로 재물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얻는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적 성공을 거두며 부까지 얻는다. 입은 입술이 도톰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상징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반듯한 입술 모양은 그가 통솔력이 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진취적이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케네디 관상의 전체적인 특징은 얼굴 전체의 조화가 남다르다는 점이다. 이목구비와 각 부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준다. 지성미를 풍기면서 누구에게나 친근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삼정과 오관은 지도자의 상이며 운세의 전환과 위기 극복의 힘이 내포되어 있다. 탁월한 추진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갔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정치적 유연성과 강력한 기세가 조화를 이루는 관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絶地로 치닫게 되면 좋은 관상에도 불리한 결과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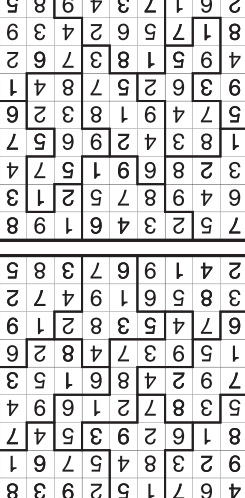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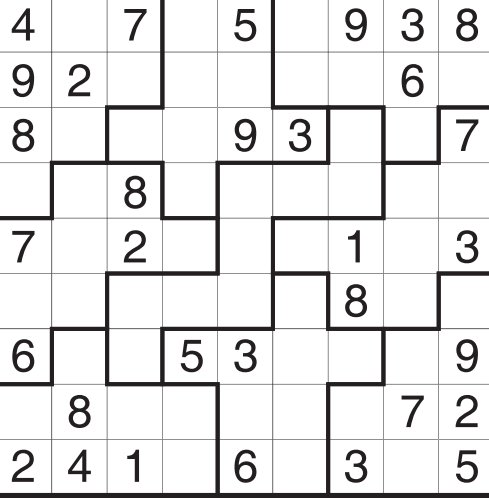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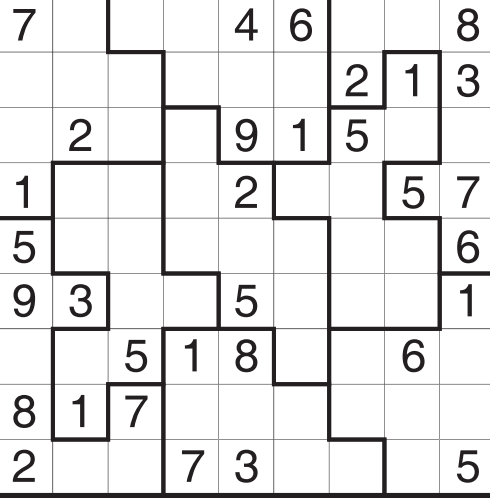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